

한국춤에 내재된 생태적 의미

이 유 진*

목 차

Abstract	III. 한국춤의 생태적 의미
I. 서론	IV. 결론
II. 한국춤의 정체성 고찰	참고문헌

Abstract

Inherent ecological meaning in Korean dance

Lee, Yu-jin ·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e dance in this era makes an attempt to communicate through various medium methods. In traditional classification, the present dance is deviated from range of arts. And in generic standard, uncertain dance, which cannot propose a pattern standard, is rampant. The origin and prototype of the Korean dance have been already lost and also worried about stagnance of dance refusing change. Therefore, we may take a new standard what is Korean dance and inspect the meaning of transmission of Korean dance in these days.

The practical lives, which are connected with space and community, have to be handed down by culture memory for the long-time transmission of traditional culture. Thus, awareness of an act was generated and the strong ties between human and ground are historical. The boundary line may alter anytime but the demarcation cannot change or exterminate the historical ties. The historic evidence was always ceremony or awareness of an act based on region or area and the handed down to dance. In other words to inspect the meaning of transmission of Korean dance is not the existence physically but historic memory which was continuous connected things.

These research determine the historic reason of transmission of Korean dance and find the

*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졸업

논문투고일: 2014. 04. 20. 심사일: 2014. 05. 20. 게재확정일: 2014. 06. 09.

cogency of the ecological contiguity and the meaning in a ecological society. In addition, we set an objective to look up the meaning of the future of Korean dance. No one denies that human bodies are linked with mind and thought. So we can present the mind and idea with bodies and movements in body. Therefore, the research of ecological significance intrinsic in Korean dance is for, first, the standard of identity of culture, second, the meaning of the future of Korean dance through historical and ecological approaches.

key words: korean dance, identity, ecology

주요어: 한국춤, 정체성, 생태성

I . 서론

지금 이 시대의 무용은 다양한 매개 방법을 통해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전통적 분류법으로는 현전하는 무용이 예술의 범주를 벗어나 있기도 하고, 장르적 기준에서는 양식적 기준을 제시하기가 애매한 무용들이 난무하다(한혜리, 2013:33). 전통적 혹은 장르적 기준으로 오늘날의 한국춤을 바라본다면 그 기원 및 원형은 이미 상실되었으며, 변화를 거부하는 춤의 정체화가 우려된다. 따라서 무엇을 한국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선택하고, 한국춤이 오늘날에도 전승되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

문화가 오랜 기간 전승되기 위해서는 공간이 사회와 관계를 맺는 실천적 삶이 문화 기억으로 전승되어야 하며 그래서 생성된 것이 의식 행위이고 땅과 인간의 이러한 유대 관계는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영토의 경계는 언제든 달리 책정될 수 있지만 단지, 어떤 목적에 의한 경계가 땅과 인간의 오랜 유대 관계를 소멸시키거나 변화 시킬 수 없는 것이다. 땅과 인간의 유대 관계에 대한 역사적 증거는 언제나 지역이나 땅을 기반으로 전승되는 의례나 의식 행위였고 그러한 문화 속에서 전승되고 있는 춤이었다(한혜리, 2013:41). 즉, 한국춤이 전승되는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결국 춤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기억, 즉 그것과 관계 맺었던 것들에 대한 지속적 기억을 살펴보는 것이고 그 의미의 지속이 곧, 전승되는 이유이다.

인간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연결되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몸을 통해, 몸의 움직임을 통해 마음과 생각을 살려낼 수 있으며, 자신의 성찰로서의 몸짓은 건강과 삶, 그리고 마음과 생각, 가치를 바꾸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원동력은 사회적인 모순과 노동의 힘겨움을 삶 속에서 철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힘

이 되었다. 이것이 한국춤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춤적 사유가 생태사회에서 한국춤의 생태적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한국춤의 생태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춤에 던져진 중요한 의미로 한국춤의 문화적 토대가 되는 생태의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선행연구로는 생태와 한국춤은 기(氣)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움직임의 표현인 '생춤'의 형태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김현자, 1992), 생태적 관점에서 무용을 다룬 연구(유미희, 2002; 오레지나, 2010b; 이유진, 2010, 2014; 정은주, 2011)와 생태적 관점으로 무용교육에 접근하는 연구(김옥희, 2012; 박지영, 2010; 오레지나, 2011a, 2011b; 이승아, 2001; 임희선, 2012)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춤이 현재에도 전승되는 역사적 이유를 밝힘으로서, 무용에 대한 생태사회적 접근으로의 설득력을 찾고 생태사회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한국춤의 정체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둘째, 한국춤의 역사적·생태적 접근을 통해 셋째, 전승되는 한국춤의 생태적 의미와 가치탐구로 진행하였다.

II . 한국춤의 정체성 고찰

새로운 것과 전통적인 것이 만나고 충돌하는 곳에는 언제나 '한국적인 것은 무엇인가'라는 정체성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탁석산, 2000:21). '한국적인 것'이란 문제는 정체성의 한 예이다. 그리고 정체성을 논하는데 있어 외적인 것 보다는 내적인 정신상태가 중요하며, 그것이 정체성의 기준이 될 수 있다(탁석산, 2000:29). 이는 곧, 한국춤의 외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신의 연속성과 동일성이 보장된다면 동일한 춤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와 반대의 경우로, 춤추는 사람의 몸은 이전 상태와 똑같지만 정신의 동일성이나 연속성을 상실한 춤은 개인의 정체성 문제이지 전체적인 한국춤의 정체성 문제를 논하는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한국춤의 정체성을 살펴볼 때에는 춤의 외적인 형태보다는 내적 정신상태인 내용이 중요하며, 그것만이 정체성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춤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첫 번째 방법은 역사를 통한 한국춤의 특질과 요소를 밝혀 내는 것이며, 두 번째 방법은 각 분야에서 제시 하고 있는 한국적인 것들의 공통 특성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중가요의 춤과 한국 민속춤을 비교분석한다면, 한국의 문

화 전반을 꿰뚫는 한국적인 특성이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춤의 변화, 발전, 지속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이미지가 반복된다는 것은 그 이면에 뭔가가 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많은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역으로 생각해보면 모종의 원본¹⁾이 있다는 뜻일 수 있다. 이 원형은 인간의 심리에 내재하는 역사적이고 집합적인 기억의 본질을 가리킨다. 옛날에 살았던 조상들이 경험한 집단적인 기억은 원형으로 보존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적인 것의 의미 내용이 하나의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기호에 연결되고, 이 기호에 내적으로 속하게 된다. 여기에서 기호는 한국춤에서 춤사위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상징형식이라 할 수 있는 춤사위에는 근본 현상이 표현되어 있다. 근본 현상은 우리의 의식이 외부 세계에 대한 인상을 받아들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표현이라는 자유로운 작업에 연결시켜 스며들기 때문이다. 한국춤의 춤사위는 철학과 역사를 비롯한 상징이며, 그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고, 단일한 상징보다는 복합적 상징의 그물²⁾이다.

한국춤은 역사적 과정 속에서 새로운 문화에 부딪혀 변화, 발전, 지속되었고, 우리 민족의 뿌리깊은 사상과 연관되어 다양하고 새로운 한국춤이 발생하는 과정을 되풀이하왔다. 구체적으로 ‘18세기 이후의 한국춤은 크게 체제지향 패러다임, 변화지향 패러다임, 정체성지향 패러다임, 생태지향 패러다임의 변화(이유진, 2014:63)’에 맞추어 기존의 정보를 재배열하고 유용한 춤으로 가공해내는 변화 기준에는 우리문화에 대한 주체적 시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주체성에 대한 개념에는 ‘자생성’을 함의하고 있다. ‘자생성’이란 개념은 『한국미술의 자생성』(최몽룡, 1999) 이란 책에서 “그러한 명작을 만들어낸 한국적 미의식과 정체성에 작용하여 방향을 지시하는 관성이 바로 자생성이다”라고 하였다. 즉 우리 미술의 특성을 유지하려는 관성인 것인데, 한국춤의 특성을 유지하려는 관성으로 한국춤의 자생성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생력이 있는 한국춤은 외부적인 요소를 흡수하여 자기 것으로 내놓는데, 자기화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바로 한국춤의 자생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자생성은 분명 정체성과 구별된다. 즉 자생성이란 정체성에 방향을 지시하는 관성이며,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다름 아닌 주체적 태도이다. 따라서 한국춤의 주체성을 정체성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모든 문화는 민족 고유의 원형에서 파생하며, 역사의 전개 양식은 원형과 시대적 환경

1) 이러한 원본을 읍은 ‘원형’이라고 한다.

2) 인문학의 개념은 자연과학의 개념들처럼 뜻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단일한 의미 보다는 복합적인 뜻의 그물을 가진다.

과의 긴장관계에서 생긴다(김용운, 1994:36). 개개 민족의 기본적 존재 양식은 곧 문화이며, 그 문화의 기본적인 가치 의식 또는 문화 의지가 곧 원형이다(김용운, 1994:36). 한국춤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는 곧, 한국춤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원형을 새로운 환경조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원형은 시대적 상황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역사가 전개된다. 전승되는 한국무용에는 우리민족의 기본적인 가치관, 다시 말해서 원형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춤의 원형은 긴 역사의 축적뿐만 아니라 어느 시점의 한국춤에도 나타난다. 어느 시점의 한국춤이라도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항상 뒤엉켜서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원형을 의식하고 있을 때만이 한국춤의 모든 현상 가운데 그것을 지배하는 핵심적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전승되는 한국춤의 다양한 유형을 깊이 관찰하고, 그 내용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여러 현상에 관통하는 중심적인 심성을 파악하게 되며 하나의 개념이 등장한다. 그 개념은 고도의 추상과정을 겪은 뒤에 얻어지는 단순화된 표현으로, 구체적인 예로 흥, 끈기, 정, 해학, 곰삭음, 역동성, 예의, 공동체, 어울림, 자연스러움³⁾ 등의 심성은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비록 형태와 양상이 변했을지라도 최근까지 한국춤에 그 영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개념이다.

한국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한국춤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세움으로써 한국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전승하는 작업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춤을 전승하고자 한다면, 오늘의 의식구조에서 한국춤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III. 한국춤의 생태적 의미

한국춤은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정하게 지속되는 역사적 연속성(시간 차원), 다른 지역의 문화와 구별되는 문화적 개성(공간 차원), 특정 분야나 장르를 넘어 다양한 문화적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회적 공통성(인간 차원) 등에 대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변용되어 왔다. 그 과정 속에서 한국춤에는 자연에 기대어 사는 생태학적 지혜와 혼자가 아니라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학적 정신이 내재되어 있으며 역동적이

3)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학진흥원은 2012년 4월 한길리서치에 의뢰, '2012년에 주목할 한국인의 문화유전자' 10개를 선정했다(한국국학진흥원, 2012:6-9).

면서도 끈질긴 기질을 갖추고 예의의 긴장과 해학의 여유를 신명나는 흥의 몸짓을 펼쳐왔다.

한국춤에는 자연을 닮고 자연에 기대어 사는 생태학적 지혜가 도드라지게 발달했다. 한국에는 전통적인 천인합일의 사상에 따라 인위적인 수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살리는 자연친화적 안목이 스며들어 있다. 한국춤의 ①**자연스러움**은 한국인들의 생태학적 지혜를 잘 보여주는 한국춤의 특성이다. ②**어울림**은 생태학적 지혜와 인간학적 지혜가 어우러지는 통로이다. 한국인들은 자연에 기대어 사는 생태학적 지혜를 남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인간학적 정신으로 연결했다. 자연과 인간의 어울림은 인간과 인간의 어울림으로 이어졌다. 어울림의 정신은 공동체 의식과 문화를 빚어냈다. 자연스러움과 어울림이 보여주는 한국춤은 ③**신명**을 거쳐 공동체 의식으로 펼쳐진다. 한국 문화는 흥과 열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한국인들은 부정적 현실을 정신적 여유로 넘기는 ④**해학**과 ⑤**심신에 경건한 긴장**을 부여하는 예의를 삶 속에서 조화시키며 살아왔다. 이러한 태도와 기질은 신명 나는 가락과 역동적인 몸짓의 흥으로 구현되는 한국춤의 특성으로, 한국춤의 내재된 생태적 의미로 탐구할 수 있다.

① 자연스러움

한국춤은 인간도 자연현상의 하나로 보는 자연 순응의 심성을 바탕으로 한다. 천지인 합일사상과 그 심성이 한국무용에 명료하게 춤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나 있다. 따라서 한국춤의 춤사위는 순환적이고, 동시적인 작용으로 역동적이며, 몸의 부분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창조활동으로 표현된다. 한국무용의 움직임 원리는 소우주로 보는 인간의 움직임이 곧 전 우주와 함께 부단히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춤추는 몸은 자연과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자연의 모든 것과 영향을 주고 받음으로써 점진적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다(이유진, 2013:80-81).

작은 우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존재적 인식은 춤추는 음악에도 나타나 있다. 강박으로 시작한 소리는 연결된 맞물림 속에서 절정을 이루었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순환 속에 흘러간다. 12박 중물이 장단이나 12분박의 굿거리장단 속에서 음들의 연계성과 강약은 농경시대였던 우리의 12달 삶의 흐름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는 감각을 상징한 것이다. 낮과 밤이 순환하듯이, 밀물과 썰물이 교차되듯이, 계절이 바뀌어가듯이 춤과 음악들의 구조는 자연계의 리듬을 거슬리지 않고 타고 흘러가는 것이다(이유진, 2013:73-74).

이와 같이, 자연에 질서가 있듯 춤추는 몸에도 질서가 있고, 춤의 자연스러움은 자연과 인간의 어울림이다.

② 어울림

생태학적인 인식은 세상을 바라볼 때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는 한국춤이 동작구성에 있어 기의 흐름에 주목하고 이를 증시한다. 즉 한 동작과 다음 동작의 연결이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흘러 음양 흐름의 변화처럼 연결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결과 한국무용은 감으면 풀리고, 굽히면 피고, 자연스럽게 중단 없이 이어져서 동작 구성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바라보이게 되는 것이다(이유진, 2013:68-69).

상체와 하체는 조화롭게 이어져야 하고 상체의 움직임이 하체의 움직임 진행과 따로 떼어져서 진행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몸 전체의선의 흐름 역시 하나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는 춤과 음악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무용은 항상 현장에서 악사와 함께 춤을 추었고, 음악에 대한 이해로 악사와 장단을 주거나 받거나 음악과 춤을 넘나들어 하나 되는 경지의 춤이 많다. 이는 전통적인 한국무용의 존재방식에서 음악이 분리될 수 없는 근원적인 부분이었고, 춤과 음악이 하나의 흐름으로 즉 유기적인 관계를 지녔음을 뜻한다(이유진, 2013:68-69).

자연에서 생활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놀이로서 전승되고 있는 강강술래를 통해 우리 민족의 자연에서의 생활을 살펴볼 수 있다. 강강술래의 기본대형은 원으로 원이란 것은 중심에서 어디든 같은 거리에 있으며, 이는 참가하는 사람 누구나 평등한 관계임을 말한다. 원은 춤추는 사람 서로서로 손을 잡으며 진행되는데, 서로 손을 잡음으로써 발을 맞추고, 호흡을 나누며 서로의 생활과 생각을 담은 앞소리와 그에 상응하는 뒷소리(강강술래)를 같이 부르며 공감대를 만들어간다. 덩석몰이, 바늘귀 꿰기, 남생아 놀아라, 꼬리 잡기, 청어엮기, 기와밟기 등의 다양한 놀이를 진행하면서 각각의 놀이가 자연스레 이어지는 데, 이는 전체의 통일감을 일치시킨다(이유진, 2013:70).

③ 신명

우리 각각의 내면에는 참 자연의 생명이 살아 숨 쉰다. 그 자연성을 만나는 것, 그 자연성을 불러 깨우는 것이 신명이다. 이러한 신명을 체험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중의 하나가 춤이다(오레지나, 2010a:24). 신명은 내재적 발현을 통한 자아발견을 가능하게 하고

당면한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통해 자아를 회복시키며, 창조적인 생성에너지로서 신바람을 일으키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며 이를 통해 민중적인 미의식을 형성하게 한다(오레지나, 2009:29). 이처럼 신명은 삶의 긍정 에너지로서 삶에 활력을 주고 정서를 순화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춤은 이의 기운생동한 춤이 관객에게도 전달되어 춤꾼과 관객이 하나의 일체감을 불러일으킬 때 그것을 신명나는 춤판이라고 한다. 한 예로 삶속에서 많은 장애를 겪게 되었을 때, 초월적 힘과의 만남을 추구하고자 자연에서 춤과 음악을 동반하여 의식을 행하여 왔다. 현재 계승된 많은 한국무용들의 근원적 뿌리는 가장 오래된 치유의 역사라 할 수 있는 곳, 무속에 있다. 따라서 한국무용을 통해 우리의 생태적 진단과 치유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자연과 생활의 관계 속에서 자연을 모방하고 생생지리의 이치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고자, 그리고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풍자와 해학이 한국무용의 자연발생적으로 기원을 정확히 밝힐 수 없는 공동의 춤이며, 몸에서 몸으로 전승되는 춤으로서 한국무용의 생태적 상징은 소멸되지 않고 전승되는 것이 생태적 상징 표현이라 할 수 있다(이유진, 2013:79).

④ 해학

전승되는 민속춤을 통해 우리 민족의 생태적 진단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예로 삶속에서 많은 장애를 겪게 되었을 때, 초월적 힘과의 만남을 추구하고자 자연에서 춤과 음악을 동반하여 의식을 행하여 왔다. 그리고 자연과 생활의 관계 속에서 자연을 모방하고 생생지리의 이치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고자, 그리고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풍자와 해학이 한국춤의 생태적 배경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즐겁고 행복한 일에도 신명 나는 가락과 춤사위를 펼쳤지만, 슬프고 불행한 사태에 직면해서도 여유와 끈기를 잃지 않았다. 하회 탈춤이나 통영 오광대에 깃든 해학은 팍팍하고 고단한 삶을 비판하기 보다는 정신적 여유를 갖고 살짝 비틀어 보며 풍자하는 지혜를 보여준다(한국국학연구소, 2012:12). 또한, 한국의 탈이 인간의 정겨운 모습을 표현하는 것은 사회제도적 모순점을 지적하면서도, 풍자와 해학이 깃든 낙천적 사고와 관련이 깊다(이유진, 2013:71).

⑤ 심신에 경건한 긴장

한국춤은 몸과 마음의 일체로서 보여 지는 형이 아니라 몸에 흐르는 생명력, 즉 기에

주목한다. 그러므로 동작은 살아 움직여야 하는데, 그 매개가 기이다. 무용수의 몸과 마음은 기로 통하고 춤과 춤추는 이도 기로 통한다. 따라서 이들 간에 기의 흐름이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하고 이런 흐름이 ‘기운생동’이라 하여 생명력을 지닌 춤이다. 이런 춤 속의 기의 움직임은 관객에게 구체적으로 호흡의 흐름으로 보이며, 따라서 한국 춤에서 숨은 생명력 즉 생기의 증거이며 기 덩어리인 몸은 자연의 음양의 흐름의 변화를 본받는다. 한국춤을 추면서 음양으로 춘다는 것은 기운, 파장을 느끼는 것이다. 음으로 춘다는 것은 내 안의 기운을 모아 추는 것이고, 양으로 춘다는 것은 내안의 기운을 남김없이 외부로 발현시키는 것이다. 에너지를 뽑아내는 쟁점은 몸에 있고, 내 몸의 단전이 몸의 가락(끝까지) 구석구석 기를 뻗치고 있어 나를 물리적으로 나타내려 하지 않고 스스로에 도취되지 않으며 ‘숨의 발’을 이고 춤을 추는 것이다. 내 안의 기운이 순간순간 보이게 추는 것이다. 한국춤을 고대 때부터 뿌리는 사위가 많았다. 춤추는 이치를 따를 때, 몸은 천지, 즉 우주와 소통한다. 따라서 몸이 조화롭다는 것은 육합의 일치를 의미한다.

추는 동안 호흡의 흐름 위에서 춤사위는 정도를 지키며 자연과 호흡한다. 그렇기 때문에 춤추는 동안은 움직임의 절제를 지킨다. 이러한 절제는 춤의 풀이성과 즉흥성, 창조성을 표출하는 춤의 움직임이 자유로운 넘침을 막는 자제 속에서 자리한다. 이는 내 안으로 방향을 돌리는 관조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겉으로의 절제로 인하여 안으로 향하는 축적이 일어나며 이 축적이 응축함을 이루어, 한국춤을 무겁게 보이게 한다. 끈기와 정중동의 역동이 보이는 이유이다. 무거우면서도 그 자리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물이 흐르듯 가볍게 흘러가며, 내적 축적이 응축됨으로 절정을 이룰 때, 호흡은 풀어지며 또한 그 풀음은 동시에 바로 다음 축적을 위한 비움으로서 준비가 되는 것이다.

IV. 결론

전승되는 한국춤을 지나온 시대의 공감대로서 그리고 이 시대의 동지로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구성하는 협력자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전승되는 이유를 탐색하고 지금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문화 전승으로서의 무용 독해의 주 목적은 사실 혹은 원형에 의한 시대 문화의 정보전달이기 보다는 인식전달이다. 문화 전승으로서의 무용 독해는 무용을 개념 언어로 번역하여 인류 문화사적 지식 정보다 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승무용을 지역과의 유대관계, 즉 지역 문화를 배경으로 해

석하고 의미를 새롭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한혜리, 2013:43). 따라서 전승되는 한국춤의 주목적은 사실이나 원형의 전달이 아니라 인식전달로 문화를 배경으로 무용을 해석하고 의미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무용의 정체성의 기준을 마련하고, 생태사회에서 한국춤의 지향점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춤에 내재된 생태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 한국춤의 정체성을 밝히는 첫 번째 방법은 한국춤이 역사를 통해 공동으로 만들고 지금도 갖고 있는 것들의 특질을 분석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한국의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적인 것을 일차적으로 발견하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공통되는 특성을 찾는 것이다.
- 한국춤의 변화, 발전, 지속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이미지가 반복된다는 것은 그 이면에 모종의 원본이 있다는 뜻이다.
- 한국춤의 춤사위는 철학과 역사를 비롯한 상징이며, 그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고, 단일한 상징보다는 복합적 상징의 그물이다.
- 한국춤의 자생성은 외부적인 요소를 흡수하여 자기 것으로 내놓는데, 자기화할 수 있는 힘이다.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다름 아닌 주체적 태도이다.
- 흥, 끈기, 정, 해학, 곱삭음, 역동성, 예의, 공동체, 어울림, 자연스러움 등의 심성은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비록 형태와 양상이 변했을지라도 최근까지 한국춤에 그 영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개념이다.
- 한국춤에는 자연을 닮고 자연에 기대어 사는 생태학적 지혜가 도드라지게 발달했으며 자연스러움, 어울림, 신명, 해학, 심신에 경건한 긴장 등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한국춤의 생태적 의미는 역사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파생되었다. 한국춤은 계속 변화하므로, 새로운 상황에 계속 적응하고, 수정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한국춤의 생태적 의미를 통한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개화기 이후, 전통문화의 대부분이 사회의 진보를 막는 봉건적 유산이라고 낙인찍히고 버려졌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 서구의 잣대로 그들의 가치 기준에서 이루어진 왜곡된 역사일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도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다시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런 노력을 위한 첫걸음이 한국춤의 정체성 기준을 살펴보고, 생태적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다.

오늘의 생태의식에서 전승되는 한국춤은 자연의 전일성을 체험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삶의 역량을 신장시킨다. 따라서 한국춤에 대한 시대적 연구는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옥희(2012), “커뮤니티댄스 실행 모델 생태감성 무용 구조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3권 2호**, 71-85.
- 김용운(1994), **원형의 유혹**, 경기: 한길사.
- 김현자(1993), “생춤 체험의 현상학적 접근”,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탁석산(2000), **한국의 정체성**, 서울: 책세상.
- 박지영(2010), “생태주의에 기초한 무용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적용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오상아(2007), “외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서 본 한국무용의 미래적 전망”, 한국체육철학회, **한국체육철학회지 15권 2호**, 247-263.
- 오레지나(2009), “한국무용에서 신명의 의미”,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0권 3호**, 19-30.
- _____ (2010a), “신명체험을 위한 한국무용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1권 2호**, 23-38.
- _____ (2010b), “에코댄스의 개념”,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모드니 예술 3집**, 51-60.
- _____ (2011a), “에코댄스의 구조 및 교육적 의미”,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2권 2호**, 39-51.
- _____ (2011b), “생태무용교육의 방향 및 목표”,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모드니 예술 4집**, 25-33.
- 유미희(2002), 한국춤에 나타난 생태여성주의 성향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3권 2호**, 69-90.
- 이유진(2010), “살풀이춤에 내재된 생태적 의미”,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모드니예술 3권**, 103-116.
- _____ (2013), “한국무용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본 생태무용의 발생 배경과 범주”,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_____ (2014), “한국무용 패러다임의 변화 양상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4집 제2호**, 47-66.
- 이승아(2001), “고등학교 무용수업의 생태학적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이정화(2009), “문화교차적 상황과 교육현장의 한국춤 정체성”,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임희선(2012), “생태 예술교육 사례연구 : 생태무용의 교육적 기대”,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은주(2011), “동양의 생태적 몸관”,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모드니예술 5권**, 65-77.
- 최몽룡(1999), **한국미술의 자생성**, 경기: 한길아트.
- 한국국학진흥원(2012), **한국인의 문화유전자**, 경기: 아모르문디.

한혜리(2011), **무용사색**, 서울: 한학문화.

_____(2013), “문화 담론에서 무용 독해 방법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4집 제2호, 29-45.